

- 주요 뉴스: 미국 고용 및 제조업 지표, 예상치 하회, 인플레이션 통화긴축 우려를 완화
 - 연준 부의장, 9월 금리인상 보류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
 -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을 강화할 방침
 - OPEC+, 7~8월 일일 증산 규모 50% 확대에 합의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8%], 달러화 약세[-0.7%], 금리 보합[+0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 등으로 매수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건축 관련주 강세 등으로 0.6%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9%, 0.2%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5월 고용보고서 발표 관련 경계감 등으로 보합 마감
독일은 ECB의 긴축강화 전망 등으로 5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42.4원, -8.7원) 0.8% 하락, 한국 CDS 보합

		6/2일	6/1일	전일대비			6/2일	6/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176.8	4,101.2	1.84%	국채 금리 10y	미국	2.91%	2.91%	0bp
	유럽	441.23	438.72	0.57%		독일	1.24%	1.19%	5bp
	중국	3,195.5	3,182.2	0.42%	CDS 5y	한국	45bp	45bp	0bp
	일본	27,414	27,458	-0.16%		중국	70bp	71bp	-1bp
	한국	2,659.0	휴장	-1.00%	위험 지표	EMBI+	-	378	-
환율	달러지수	101.76	102.50	-0.72%		VIX	24.72	25.69	-3.78%
	유로화	1.0747	1.0650	0.91%		WTI유	116.87	115.26	1.40%
	엔화	129.84	130.13	0.22%	원자재	구리	455.3	432.9	5.18%
	위안화	6.6603	6.6862	0.39%		금	1,868.6	1,846.6	1.19%
	원화	1,252.1	휴장	-1.19%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고용 및 제조업 지표, 예상치 하회. 인플레이션·통화긴축 우려를 완화

- 노동부에 따르면, 5월 ADP 민간고용은 12.8만건으로 예상치(30만건) 대비 낮은 수준. 또한 이는 '20년 4월 이후 최저. 5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역시 20만건으로 전주(21.1만건) 및 예상치(21만건) 하회
- Deutsche Bank의 Bett Ryan은 금융긴축이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노동수요는 정점을 통과한 것 같다고 진단. MasterCard Economics의 Michelle Meyer는 일부 산업에서 장기간 지속된 노동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으며, 이에 임금상승률 역시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
- 한편 4월 공장수주는 전월비 0.3% 증가했으나, 이 또한 전월(1.8%) 대비 둔화. 항목별로 구분하면, 자동차 및 주요금속 주문은 증가했으나 전자장비 및 가전 등의 주문은 감소. 컴퓨터의 경우 소폭 증가
- 공산품의 출하시간 증가율(2.0%→0.2%)은 둔화한 반면, 재고(0.6%) 및 이월주문(0.5%)은 전월 대비 증가하는 등 공급차질 완화 신호가 발신. Regions Financial의 Richard Moody는 기업 시설투자 증가세가 완만해지는 등, 기업의 경기 신뢰가 이전에 비해 약화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부의장, 9월 금리인상 보류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

-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최근 진행 중인 금리인상 사이클이 단기간 내에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아래로 떨어뜨려야 하며, 이를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설명
- 클리블랜드 연은의 메스터 총재는 일정 수준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 향후 2회의 0.5%p 금리인상 이후 경제 상황을 살핀 후 인플레이션 수준이 여전히 높으면 추가적인 긴축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 최근 선물시장에서는 정책금리가 연말에 2.75~3.0%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 이는 금년에 남은 5회(6, 7, 9, 11, 12월)의 FOMC에서 2.0%p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

■ 블랙록 회장, 향후 수 년 동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을 전망

- 래리 핑크 회장은 높은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 또한 최근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연준의 효과적인 대책이 많지 않다고 지적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강한 인플레이션 고려 시 통화정책 정상화 필요

-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매우 강하며 광범위한 범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 한편 향후 2년 안에 경제는 성장 둔화 혹은 스테그네이션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발언

■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을 강화할 방침

- 판공성 부총재는 경제 시스템 내에 합리적 수준에서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도 유도할 것이라고 첨언

■ OPEC+, 7~8월 일일 증산 규모 50% 확대에 합의

- 해당 회원국들은 증산 규모를 일일 43.2만배럴에서 64.8만배럴로 늘리기로 결정. 이번 조치는 러-우 전쟁 이후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 일본은행 정책 위원, 최근 경기여건에서 통화긴축은 시기상조

- 아다치 세이지 위원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는 연료비 급등과 같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라고 분석. 오히려 지금과 같이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조기 통화긴축은 성장 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6/2 현지시각 기준)

- 유로존 4월 생산자물가(전년동월비): 37.2%, 3월(36.9%), 예상치(38.5%)

■ 주요 경제 이벤트(6/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5월 고용보고서, 미국 5월 ISM 서비스 경기지수
- 유로존 4월 소매매출 및 4월 S&P 글로벌 종합 PMI, 독일 4월 무역수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OPEC+의 증산 합의, 실질적인 유가 하락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 - WSJ

(OPEC's Nod to Biden Will Help Saudis, Not Oil Users)

- OPEC+는 7월과 8월 원유 증산에 합의. 그러나 증산 결정 보도에도 브렌트유 및 WTI 가격은 상승. 이는 시장에서 유가 하락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 회원국의 추가생산 여력 부족 등으로 OPEC+는 향후 수개월간 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소지
- 또한 유럽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러시아가 고의 감산에 나설 수도 있어 증산에 따른 유가 하락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전망. 한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합의한 이유는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추정

■ 미국 행정부의 고물가 대응, 공급망 확보 등이 대안 - The New York Times

(There Is Way More Biden Can Do to Lower Prices)

- 최근 제품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법 마련이 급선무. 정부의 관련 부처들은 식료품,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상품의 단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 이에 정부의 구매 후 재판매 정책이 방안 중 하나
- 아울러 공급망 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을 통한 제품 제공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군수시설을 이용한 물류부문의 공급 확대도 방안. 또한 농산물을 비롯한 자동차, 반도체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해 관련 법안의 통과도 중요

■ 미국 달러화 가치 상승,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유발 - WSJ

(How a Strong Dollar Hits Microsoft, Other Big U.S. Companies)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개입, 과도하면 역효과를 초래 - 블룸버그

(Biden's Economic Hubris Gives Way to Humility)

■ 영국에서 검토 중인 은행자본 규제, 영란은행에 과도한 권한 제공할 소지 - Financial Times

(A regulatory shake-up that would give central banks too much power)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